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지 않는 예배자들 돼야”

허연행 목사, 중보기도 컨퍼런스서
 청교도 신앙 실천 강조

2023 자마(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9일부터 11일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1일 오전 9시 20분에 허연행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허 목사는 “오늘날 백인들조차도 청교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이 청교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골의 골동품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회복의 길은 분명히 있다. 핸드폰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가게에 갔다 주면 리셋을 해서 공장에서 나올 때의 포맷과 같은 상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옮겨서 결국에는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리셋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이다. 사슴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가듯(시편 42:1) 미국 부흥의 첫 단추도 결국은 이것이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기분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우회한 어떤 시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중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자마(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9일부터 11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마지막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독일보

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았다. 로마서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웅장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시원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는 결국 그에게로 돌아간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었다. 가족이나 마

음이냐 마국간에서도 말이다. 그래서 성과 속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코람데오가 멋진 말이다.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이어 허 목사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직업의 귀천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폴링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다. 잡(JOB)은 나중에 나온 말이다. 폴링

이 있을 때 청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퉁이 부분을 거룩하게 청소하도록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금지가 있었다”며 “그래서 그들은 그 청소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서비스이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예배자들이었다. 선데이와 주중, 성과 속의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작은 일에서 실천하고 있다. 예배 축도를 마치면 3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 왜냐하면 축도가 끝나면 성도들이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지. 봉사해야지. 하는 사람 만날 생각, 일 할 생각에 준비 없이 생활 속에 나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식당에 가서 큰소리 내고 싸우고,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차안에도 계신다. 청교도의 전통이 과거 유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민교회를 가르켜 계토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3면에 이어서 계속]

“믿음의 소수자되어 평화통일 이루자”



제 78주년 8.15 광복절 감사예배가 남가주교계 주최로 13일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제 78주년 8.15 광복절 감사예배가 남가주교계 주최로 13일 오후 4시 30분에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능히 견져 내시리이다’(다니엘 3: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은성 목사는 “시대마다 영적인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나라가 광복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는다. 오늘 이 시대에 도전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조국과 미주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광복의 기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조국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다.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남가주 교회가 믿음의 소수가 되는 것”이라면서, “믿음의 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펼치신다. 남가주교협,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과 일치, 복음통일,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밝혔다.

교협 회장 최영봉 목사는 환영사에서 “저는 광복세대는 아니지만 78년 전에 해방의 때를

얻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라면서 “남가주 교계가 이제 영적인 대해방의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원한다”고 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정해진 목사(증경회장), 최학량 목사(증경회장), 김향로 장로(전이사회장), 민종기 목사(증경회장)가 축사를 했으며, 미셀박스틸(미연방하원의원), 지미 고메즈(미연방하원의원), 영김(미연방하원의원), 잔리(LA시의원), 도미니크 최(LA경찰국부청장), 마리아엘레나두라조(미연방상원의원)이 각각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이어 정완기 목사(증경회장)의 인도하에 만세 삼창과 광복절 노래 합창이 있었다. 특별히 소리엘의 원멤버 장혁재 목사의 찬양 집회가 행사 마지막에 있었으며, 내년 연방하원의원에 출마 예정인 공화당 후보 칼빈 리의 간단한 소개도 있었다. 모든 순서는 한기형 목사(증경회장)의 폐회 축복기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은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2천년이 지나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사라졌는가?”

충현선교교회 38주년 기념 부흥회, “교회여 일어나라”

“지난 8월 10일(목)부터 13일(주일)까지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는 시애틀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를 초청해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를 주제로 설립 38주년 기념 부흥회와 헤브론 경건훈련을 개최했다. 부흥회 때 시간 권준 목사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8월 10일(목), 저녁 7시 30분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행 2:42-47)라는 제목으로, 권 목사는 교회가 두가지 종류-고체교회와 액체교회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 팬데믹 이후 교회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었다.

◆ 고체 교회 VS 액체 교회

그는 “교회는 두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체 교회(solid church)와 액체교회(liquid church) 둘로 나눌 수 있다. 고체 교회는 전통적이고 굳어진, 제도화된 교회, 액체교회는 변화는 세상 속에서 유연함으로 변할 수 있는 교회이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모습을 변형시키면서까지 계속 나아간다. 그러면서 호수, 계곡, 폭포를 만들기도 하고, 굽이 굽이 흘러 돌고 돌아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변형되어야 한다. 교회가 고체교회가 되면 안 된다”며 설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원의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하는데 많은 기성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비전: 기성교회도 변화되어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 창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 많은 기성교회를 섬기는 목회였다. 그런 가운데 2000년 1월 28년 된 형제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장년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다. 제가 37세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였다. 그런데 노인이 많기로 소문난 교회,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변화가 쉽게 온 것이 아니며, ‘교회의 변화’란 사실; 죽기 만큼 힘든 것이라며, 이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란 누구인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충현선교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권준 목사(형제교회 담임)가 사도행전 2:42-47절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다.

“교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주님은 건물과 장소를 얘기하지 않으셨다. 건물과 장소는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인간의 언어로 ‘교회 가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만 여기기 시작했다.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난다. 교회와 아무 상관 없이 살아가다. 예배는 삶으로 시작된다. 교회는 수용능력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파송 능력을 갖고 말한다. 여기 몇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열 명이 있건 백 명이 있건 만 명이 있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는 선교에 대해서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며, 교회의 DNA는 ‘선교’이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에서, 수백년 동안 “가서(go)”가 강조되었는데, 마태가 강조한 것은 “제자 삼으라”라며, 선교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선교 대사명, “가서” 가 아닌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한 단어가 무엇인가. 수 백년 동안 강조한 단어가 “go”이다. 이 단어는 선교를 일으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마태가 강조한 것은 “제자 삼으라”이다. ‘가라’는 것에 강조를 두다 보니, 해외에 가지 않으면 선교라 여기지 않게 되었다.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시켰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단기선교를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선교사로 산다. 잠자리가 불편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음식이 맞지 않는데도 맛있다고 먹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 다 주고 온다. 단기선교를 가면 선교사로 사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

◆ 2천 년이 지나,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사라졌는가?

그는 “오늘 이곳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다. 학교, 직장, 가정이 선교지”라며,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오늘 21세기에도 재현될 수 있다. 2천년전 성령하신 성령님이 2천년이 지나서 그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회제가 되었다. 교회의 뉴 노멀이 뭔가? 그것은 이 네가지. 교회가 놓칠 수 없는 네가지-말씀 교제 예배 기도이다.”

그는 교회가 작은 일에 흔들리는 이유가 즉 말씀의 양육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제에 관해서, 교회를 “비빔 공동체”라며, “따로 올려 놓기에는 부족하고 부실하다. 그러나 각자의 색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는 하나된 작품이 탄생한다. 비빔 때 두가지가 필요하다. 고추장과 참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라고 비유했다.

◆ 예배에 목숨 걸라

셋째, 예배에 관해서,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다”라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 와서 뭔가 하긴 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왔던 모습 그대로 일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이다. 세상에 살면서 1불 버는 것이 전쟁과 같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조롱 받기도 하고, 무시 당하기도 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깨어진 자존감과 내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복되어 세상을 향해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것이다. 삶의 승패는 삶이 자리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으나 없느냐에서 결정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저의 관심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사역이 어려워져 힘든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자제를 갖춘 곳이 아니었으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함이 회복되고 자아가 깨어진다.”

◆ 국윤권 목사, “감사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 없어”

국윤권 목사는 설립 38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그는 “감사와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눈물과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주신 1대 정상우 목사님, 2대 민종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 뿐이다.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고 했다.

또 국 목사는 39주년까지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충현선교교회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라’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온 예배회복과 더불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8월 20일 새생명축제 주일에는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던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화요 사랑방, 문화공연, 골프대회 등을 통해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X 구름

빛이신 하나님
이제까지 온 세상을 비취오셨는데
오늘 아침 X라고 하니
아니야 모든 나무들을 보거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받고 있지 않니
나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찬송하며 내 인생 길 걸거야

-글사진: 최순길-

2023 우미셀 X 원하트 워십 투어 WORSHIP TOUR

8월 18일 금 7:30PM
감사한인교회 본당

8월 19일 토 6:00PM
주님의영광교회 본당

TICKET \$15

티켓 수익은 디아스포라 미주 지역 찬양, 문화 사역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됩니다

우미셀 목사

만나교회 부목사/찬양인도자
재미 2세 디아스포라 사역자
한국 만나교회 예배인도자

원하트 미니스트리 사무실 (13913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오프라인 티켓구매 | 감사한인교회 사무실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주님의영광교회 사무실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온라인 티켓구매 | oneheart-usa.com

문의 | 213 347 5080

월드미션, 임동선 목사 탄생 기념 다채로운 행사 준비

8월 11일(금)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WMU)에서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기자 간담회에는 월드미션대학의 임성진 총장, 신선묵 부총장, 윤임상 음악교수, 남종성 교수, 임종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임성진 총장은 “올해로 임동선 목사님 돌아가신 지 7년째가 되었고 탄생 100주년이어서 특별한 해 같이 느껴진다. 그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9월 24일(주일) 기념관 개관식

9월 24일(주일) 오후 7시에 개관할 예정인 기념관에 대해서, “기념관이 동양선교교회에도 있지만 월드미션도 설립하셨기 때문에 기념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을 진열하고 영상을 만들고, 파일로도 만들어서 USB에 담아서 드릴 것이다.”

◆ 학술세미나, 릴리 재단 1백만 불 후원

신선묵 부총장은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이라는 주제의 영성 세미나(8/17, 목,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했다.

“릴리 파운데이션(Lilly Edndowment Inc.)으로부터 1백만불 후원을 받아 디지털 시대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에 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성 13명의 학자들이 영성에 관한 논문을 써서, 두 권의 책이 통전적 영성 시리즈 1, 2로 출간됐다. 저의 논문은 그분의 영성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면 최윤정 교수는 영성을 온라인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 기념 음악회, 도산 안창호의 최원현이 임 목사 옆에, 클라라 김이 뮤지컬 담당

세번째 행사인 기념음악회(10/21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를 감독하는 윤임상 교수가 이번 행사에 대한 비전을 전했다. 윤 교수는 “크리스천 리더, 평신도로서 가장 닮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설립자님을 생각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해 모범을 보인 분”이라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이 분을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보여드리고 싶다. 이 분 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한가지 관심 밖에 없었다. 이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임상 교수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故 임동선 목사의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2004년 콤팩트판사 발행)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임 목사의 선교를 향한 정신



8월 11일(금) 월드미션대학에서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남종성 교수, 임성진 총장, 신선묵 부총장, 윤임상 음악교수

을 오라토리오와 뮤지컬 형식을 빌려 표현할 계획이다.故 임동선 목사역은 도산 안창호 공연의 가수 최원현이 맡게 되며, 오케스트라 45명, 콰이어 4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이다. 뮤지컬 부분은 클라라 김(극단 시선의 대표)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 비전 넥스트, 장학금 및 선교후원금 전달식

10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 <비전 넥스트>(11/11, 토,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교)에 대해서 남종성 교수가 설명했다.

“장학금, 선교후원금 전달, 논문집 및 목사님의 삶을 잘 묘사한 화보집 기념식도 가질 것이다. 93세에, 15박 16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4개의 나라를 갔다 오셔서 그때 병을 얻어서 소천하셨다. 생명을 하늘에 맡긴 분이시다. 어떤 분이 훌륭한 삶을 살면 자꾸 잊혀지지 않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나 철학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지. 행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했다.

주디 한 기자

[1면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지 ...’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민교회가 섬겨져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미국에 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에서 모르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다. 극복하는 방법은 청교도에서 나오는 DNA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 확신 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목사는 이어 거침없는 개척자 정신이 청교도들에게 있었다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후츠파(Chutzpah)정신에 대해 나눴다. 그는 “후츠파 정신에 용기였다. 배짱이었다. 도전적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다. 형식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현실을 피하지 않고, 될 때까지 정면으로 도전한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 백신을 제일 먼저 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그들은 후츠파 정신으로 많은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확보했다. 또 많은 스타트업 기업, 벤치기업을 보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목사는 청교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청교도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 팬데믹 이후에 옵션이 있다보니 ‘꼭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다. 번질되면 안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들의 예배를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또 예배를 드렸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였다”고 했다.

이어 “산업혁명 때부터 가정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경시대에서는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어서 모이면 예배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 부모들이 바빠지기 시작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일학교를 하면서 가정예배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원래는 가정예배가 중심이었는데,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의 시초였다.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일학교가 위탁교회 성격이 강해진 것이다. 마치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듯이, 내가 해야 하는 신앙을 주일학교에 위탁하는 심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을 때때로 한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교사에게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목사는 “애즈버리 부흥 현장에 가본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한다. 누가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그것은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이 아니겠는가. 이유는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한국인들 마음 속에는 희생, 섬김의 DNA가 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미주 한인 2세 3세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미국 신학교 총장들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방문해 학생들 유치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희생, 충성이 있고, 그 어떤 문화에도 적응하는 귀한 선교 자원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 신학 특강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 정기 집회가 8월 8일(화) LA감사한인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대표 이완재 박사)가 지난 8일(화) 오전 10시 30분 LA감사한인교회(홍성화 목사)에서 신앙 강좌 및 기도회를 열고 은혜를 나누었다.

이날 모임은 홍성화 목사(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 총무)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고경필 목사(성화장로교회)가 기도하고 이완재 박사가 강좌를 진행했다.

이완재 박사는 “오늘날 현실을 보면 자연 재해를 비롯해 온갖 시련과 역경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

고 있는 인도와 과테말라의 경우를 보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느껴진다”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신앙인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진실과 성실이 온몸에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심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항상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도 목사(브니엘장로교회)의 축도로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 정기모임을 마쳤다.

김민선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YUNDAI **Getaway** Sales Event

SUMMER SPECIAL SALE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IONIQ 6 SE

2023 IONIQ 5 SEL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3 HYUNDAI TUGSON SE

NEW 2023 HYUNDAI SantaFe S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ssuranc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말씀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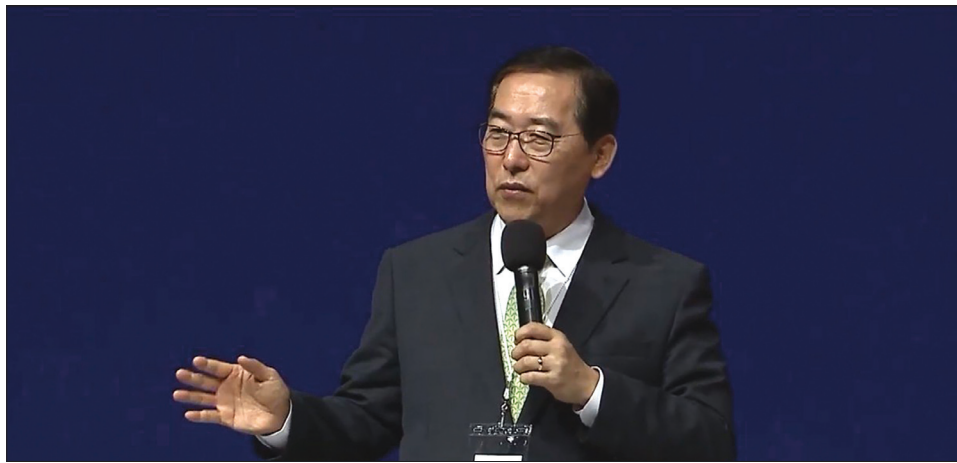
진유철 목사, 2023 자마 중보 기도 컨퍼런스서 설교해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힘쓰는 자마(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9일부터 11일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9일 오후에 개회예배에서 강순영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가운데, 위성교 목사(북가주뉴라이프교회)의 강의 후, 한기홍 목사가 저녁 집회를 이끌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허연행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안지웅 목사(메릴랜드새소망교회), 김준근 교수(JAMA)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했다.

10일 6시 새벽예배를 인도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주기도문 기도(누가복음 11:1-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우리 신앙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안



진유철 목사가 2023 자마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다. ©JAMA Conference screenshot

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이를 붙들고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말씀을 마음에 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깨닫게 되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서 진 목사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축복의 도구이다. 기도를 안하

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잘하는 척 보일 뿐이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가정과 다음세대, 교회와 영혼구

원,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방언이 터져나오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고 했다.

진 목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면서 “그러면 내 안에 없었던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새역사가 이뤄질 줄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형체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며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전도회연합회 제4차 골프대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주최한 ‘제 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7일(월) 로스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19년 1회 때 15명, 2021년 2회 때 52명, 2022년 3회 때 50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는 연합회는 올해는 60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OC한인회 조봉남 회장을 비롯해 CBMC 직전 총회장 황선철 한솔보험 회장,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 OC장로협의회장 김용진 장로, 한미지도자협회 폴죄 등 오렌지카운티 지역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신용 회장은 “골프대회가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둬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 물심양면, 심심일반 후원해 주신 기업체와 단체, 개인 성도님들, 준비하는 동안 격려해 주신 연합회 이사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영인사에서 유우경 이사장은 “4회차를 치루게 되어 기쁨이 크며 지금까지 117명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는 식전 행사에서 “선한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마음 가는 분은 선교사 자녀를 위해 마음껏 후원에 참여하시라”고 권면했다.

이번 대회는 18홀 전체 Shot-Gun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스코어는 Callaway Scoring System으로 팀원들의 친목과 교제를 우선으로 기획됐다.

연합회 신용 회장은 “선교사자녀 장학금 지원은 선교 후원의 사각지대를 돌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후원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5회 대회는 2024년 10월 23일에 Los Coyote에서 열 계획으로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다.

김민선 기자

세계선교교회, “장학금은 씨앗을 뿌리는 것”



세계선교교회(담임목사 김창섭)가 지난 13일(주일) 예배에서 1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각 천달러씩을 전달했다.

세계선교교회(담임목사 김창섭)는 8월 13일 주일 2부 예배에서 1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각 1천 달러 씩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장학금은 매년 11월 첫 토요일에 있는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매년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수여식에서 김창섭 목사는 장학금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학생: Chanmin Kang, Chanyoung Kang, Boseok Kim, Hyebin Kim, Isaac Seong, Eunseo Ju, Jacob Ji, Janice Soyeon Kim, Justin Jun Pak, Rachael Bae, Tae Kyung Kim, Yunjae Lee. 김민선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원) 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원) 재미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원)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조이스 리, M.D. 메디컬 세미나 참가자 모집!



떡과 선물 증정!

선착순 20명
예약제 모집

주제 경동맥 ✨

일시 8/30 (Wed) 10:00AM

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신청 무료 전화 신청
방법 (714) 519-3024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美 학생 1만 1천여 명, 하나님 향한 열정 불태워

모션 학생 컨퍼런스 (Motion Student Conference) 31개 주 6개국, 230개 교회, 자원봉사자 2천 명 참여

젊은 세대의 종교적 헌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청소년을 무장시키기 위한 예배 행사에 참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난 7월 29일 앨라배마주 버밍엄의 레거시 아레나에서 폐막된 '모션 학생 컨퍼런스'(Motion Student Conference)에는 31개 주와 6개 국에서 온 230개 교회를 대표하는 1만 1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를 도왔다.

모션은 앨라배마와 조지아 전역에 여러 지부를 두고 있는 교회인 하이랜드 교회 (Church of the Highlands)에서 조직했다. 하이랜드 대학 총장이자 하이랜드 교회 부목사인 마크 페투스(Mark Pettus)는 CP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모션은 한 세대가 예배 소서 2장 10절('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페투스는 "이 행사는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신앙을 행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모션 컨퍼런스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받고, 변화를 일으키고 신앙을 실천할 준비가 된 청년 세대에 관한 것"이라고 이 행사를 설명했다.

학생과 청소년 목회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기도, 예배,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 모션에 모였다고 페투스 목사는 말한다.

학생과 참석 단체는 행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하이랜드 교회는 장학금을 제공해 재정 문제로 인해 학생이 참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페투스 목사는 CP에 "이 세대의 학생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학생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션 학생컨퍼런스에 모인 1만1천여명의 학생들. ©Mark Pettus

페투스 목사가 언급했듯이 모션 컨퍼런스는 지난해보다 참석자가 18%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예배 인도자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학생 수를 설명한다.

하이랜드 교회 담임 목사인 크리스 홉지(Chris Hodges) 목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젊은 리더를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모션학생컨퍼런스는 Z세대 미국인들이 종교

예배 참석에 덜 헌신적이라는 보고가 제출된 가운데 열렸다고 CP는 전했다.

지난 2월 CP 보도에 따르면 월튼 패밀리 재단(Walton Family Foundation)과 머머레이션(Murmuration)이 소셜스피어(Social-Sphere)와 함께 발표한 'Z세대 선거 후 여론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28% 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종교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는 이들의 14 퍼센트가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미국 Z세대 절반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존 파커 플레이크, "Z세대, 신앙적 발판 찾기 위해 고군분투"

미국의 젊은 세대 중 약 절반은 성경의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BS)는 최근 '2023년 미국 성경 현황'(State of the Bible USA 2023) 보고서를 통해, 1997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의 신념과 실천을 조사하여 이전 세대와 비교 및 대조했다. 이번 결과는 올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2761명의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 Z세대에 속한 응답자 중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 또는 '무교'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34%)은 이전 세대보다 높았지만, 응답자의 58%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어린 Z세대 성인 중 49%가 성경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동의했다. 이 수치는 22세에서 26세 사이의 나이 많은 Z세대 사이에서 52%로 증가했다.

더불어, Z세대는 조사된 5개 세대 중에서 성경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았다. 각 세대별 성경 사용자의 비율은 가장 어린 세대부터, 가장 나이 든 세대까지 점차 증가했다. 밀

레니얼 세대의 33%, X 세대의 39%, 베이비 붐 세대의 46%, 노인 세대의 48%가 성경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되었다.

나이순에 따른 Z세대의 성경 참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어린 세대의 60%가 "성경에 참여하지 않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Z세대의 성경 참여 비율은 매년 줄고 있으며, 2021년에는 14%, 2022년에는 12%로 감소했다.

하지만 Z세대 내 어린 그룹(34%)이 연장 그룹(27%)보다 더 높은 성경 사용 빈도를 보였으며, 지난 1년 동안 Z세대 내 성경 사용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어린 그룹(22%)이 연장 그룹(12%)보다 훨씬 높았다.

Z세대 내의 하위 그룹 간의 대조는 종교적 정체성에도 적용된다. 비기독교인은 Z세대의 연장 그룹의 과반수(52%)를 차지한 반면, 어린 그룹에서는 40%에 불과했다.

ABS 최고 사역 통찰 책임자인 존 파커 플레이크는 성명에서 Z세대를 "신앙적 발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대"라며 "이 세대는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여전히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사역 지도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Z세대 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지 알면 놀랄 것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성경 현황 보고서는 2023년 나머지 달마다 한 장씩 추가될 예정이며, 완성본은 총 9장으로 구성된다. 김유진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국행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 수용할 것"

재중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 탈북민의 한국 입국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최재형 국회의원회장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재중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탈북민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국에서 구금시설에 억류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복송 이후에는 폭행과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봉쇄된 북-중 국경이 열리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1981년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강제 송환 금지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복송은 국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강제 복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기자

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이 국제 규정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재형 국회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지금이 국제사회가 중국정부에게 강제송환 중지,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CGN LIVE와 함께!

무료 시청



스마트폰에 CGN LIVE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CGN LIVE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앱 또는 앱 스토어에서

CGN LIVE를 검색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삼성 (Android)



아이폰 (iOS)



설치문의 : 323-932-1200

추천 프로그램 방송시간 안내(LA시간)

- 새벽기도회 오전 2시 / 오전 5시
- 주일예배 오전 7시 ~ 오후 10시 30분
- 하용조목사의 말씀 오전 3시 5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50분
- 설교말씀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7시 10분 /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10분 /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오후 12시 40분
- 성경일기 월요일 ~ 토요일 - 새벽 3시 10분 /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오후 11시 40분
- QT(말씀묵상) 새벽 2시 50분 / 오전 6시 / 오후 9시 30분
- 건강체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50분
- 조해련의 오십소 화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밤 12시 /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어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더불어 사는 삶) 수요일 오전 6시 40분 /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 금요일 00:00 / 토요일 10시 50분



TV로 CGN LIVE 시청하기

남가주 디지털공파 채널 44.9(디지털안테나 설치) CGN 시청용 전용수신기 설치 (HD 고화질로 시청가능)



문의 : 323-932-1200 | cgntvusa@gmail.com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귀한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 장 학 금 : 1인당 \$1,000 (선정인원 50명)
- 응모대상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성경필사 노트 제공)
- 접수방법 : QR코드 참고
- 접수기간 : 2023년 8월 20일(일)까지
- 문의번호 :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 결과발표 : 2023년 8월 25일(금) 기독일보 신문지면에 선정 된 성경 필사 자격을 갖는 50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사자격을 받은 50명의 학생들은 필사노트를 받은 후 필사를 시작해서 마친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독일보 사무실로 필사노트와 소감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2024년 1월에 할 예정이며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SCAN ME!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필사 후원/자/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교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오)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한정영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이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광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오후 6:00(월-토)
리타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아일랜드 · 이집트서 집회 여는 유세프, “3년내 100만명 전도 목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아포스톨로스 교회 담임인 마이크 유세프 목사. ©마이크 유세프

“사회정의의 운동이 복음 전파를 대신할 수 없어”

마이크 유세프(Michael Youssef) 목사가 2025년까지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복음주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74세인 유세프 목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아포스톨로스 교회(Church of The Apostle)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교회 신자를 포함해 19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세프는 “71세의 한 교회 장로가 앞으로 나와서 ‘나는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회의 64세 집사도 와서 똑같이 얘기했다. 그들은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을 우려하며, ‘리딩더웨이’(Leading the Way) 전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유세프는 자신의 목표가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지역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게 하는 것”이라며 “(메이컨)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 90%가 현재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흑인과 백인을 막론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400개의 교회가 이 노력에 하나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라며 “그들은 행사 전에 서로 몰랐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손을 잡고 기도하며 콜로세움 주변을 돌았다. 하나님의 성령

이 삶을 변화시킬 때, 그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유익을 보게 된다”고 했다.

유세프는 향후 몇 달간, 아일랜드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도 행사를 개최하며, 2024년에는 더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오늘날 주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모두에서 “건전한 교리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오크 운동(woke movement)이 교회에 침투하기 전, 60년대와 70년대 주류 교단들이 전통적인 성경 설교에서 도덕주의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백년 넘게 복음 대신 사회정의의를 우선시한 예로 전국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를 꼽았다.

유세프는 “불의와 불평등,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를 섬기며, 과부와 고아를 방문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이 일들은 복음 전도의 결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복음 전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경 본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유세프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부르짖던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음, 정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예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따라서 목회자들은 본문과 말씀을 설교해야 하고, 단순히 자신의 취미를 위해 펼치는 발판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 당시의 청중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하고, 오늘날에 적용하라.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유세프는 “나는 사람들이 올바른, 진정한 성경 속의 그리스도께 나아오길 바란다. 나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시간을 할애하라. 성경 문맹은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실제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이미경 기자

하와이 산불 사망자 수 93명 넘어 지역교회들, 도움 제공



하와이 마우이의 산불은 건조한 여름과 허리케인 바람으로 발생했다. © Facebook/Greg Laurie

미국 하와이 마우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93명이 사망하고 수색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지역교회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3일 보도했다.

마우이 카운티 웹사이트에 따르면 라하이아에서 55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2천1백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탔다.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더 많은 희생자가 발견되면서 사망자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비상 관리국은 라하이아에서 2천 2백여 구조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라하이아에서 집과 교회를 잃은 카위 키히 목사와 아내 사아리아는 화재를 피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카위 키히 목사와 아내 사아리아는 화재를 피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사아리아 사모는 ABC뉴스를 통해, “우리는 큰 교회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하와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카울루이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물품을 모으는 노력을 돕고 있다. 그리고 카하나와 파올리에 있는 가정에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 머물 곳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키히 목사는 “위로와 기도를 가져다주는 것은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마우이에 있는 킹 교회의 제임스 모로코 목사는 폭스뉴스에 “교회가 난민을 위한 구조기금을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그렉 로리 목사는 마우이에 기반을 교회와 지역 사회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조 기금을 마련했다. 로리 목사는 “이같은 노력은 하베스트 교인들이 삶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희망과 위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헬프는 라하이아의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회장인 노엘 브루어 예이츠(Noel Brewer Yeatts)는 “치유 및 재건 과정에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 헬프는 마우이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 기부 페이지를 제작했다.

이미경 기자

'10년 수감'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13명 석방돼



예배드리고 있는 에리트레아 성도들. 에리트레아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으나 신실함과 기쁨을 잃지 않았다. ©순교자의소리(VOM) 제공

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거짓 혐의로 10년 동안 에리트레아(Eritrea)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13명의 기독교인들이 석방됐다.

VOM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성명을 내고 "약 2주 전 기독교인들에게 '두 명의 에리트리아 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하고 '투옥된 기독교인들을 대신해 에리트리아 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그들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캠페인을 시작한 후 불과 6일 만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고, 이후 VOM은 에리트레아 현지 파트너로부터 13명의 신자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VOM의 토드 넬튼(Todd Nettleton) 대변인은 "우리는 이 에리트레아 형제와 자매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13명을 대신해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2004년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을 만났던 넬튼 대변인은 캠페인에 동참해 준 1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 달라. 에리트리아 감옥에는 여전히 3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했다.

VOM에 따르면, 하일레 나즈기(Haile Nayzgi) 목사와 키플루 게브레메스켈(Kiflu Gebremeskel) 목사는 석방되지 않은 상태다.

2023년 VOM 세계기도목록에 의하면, 에리트레아는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제한된 국가'로 분류돼 있다.

2002년 에리트레아 정부는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이외의 모든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지난 10월, 세계네이티(Segheneity) 가톨릭 교구의 초대주교인 피크레마리아 하고스(Fikremariam Hagos) 주교, 테세네이 마을 카푸친회의 아브라함 하브툼 게브레마리아(Abraham Habtom Gebremariam) 신부와 세계네이티 성 미카엘 교회의 미흐레타브 스테파노스(Mihretab Stefanos) 신부 등은 에리트레아에서 정의와 화해를 요구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됐다. 에리트레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감옥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 수감자들은 선적 컨테이너에 갇혀 지내며 고문을 당한다.

CP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정교회 신자인 이사이아스 아페베르키(Isaias Afewerki·75) 에리트레아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3개 기독교 종파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집권 민주정의인민전선 대표인 그는 무자비한 독재자로 유명하다.

오픈도어는 "에리트레아에는 1,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으며, 공식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美 공화당 의원들 "정부, 무신론 홍보에 자금 지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서 무신론을 확산시키는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텍사스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의원, 뉴저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세계 보건 및 인권 및 국제기구 소위원회 위원장, 플로리다 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 감독 및 책임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의 서한은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에린 바클레이(Erin Barclay) 차관보 대행과 라샤드 후세인(Rashad Hussain) 국제종교자유사무국(OIRF) 대사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바클레이 대행과 후세인 대사는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인본주의 행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무교인 및 비종교인을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 증진 및 수호"라는 제목의 '2021년 모금 기회 통지'(NOFO)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NOFO 프로그램의 결과 중 하나는 "무신론자 및 이단의 개인 구성원이 신앙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나 조직을 형성하거나 가입하고, 지지 캠페인을 구현하고, 모든 사람의 관용과 수용 문제에 대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서한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 이데올로기나 신념을 홍보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사용할 목적을 가진 어떤 조직에도 자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과 OIRF의 명시적인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부는 인본주의가 종교적 신념과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분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반 세기가 넘는 기간 법원은 인본주의를 설립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종교'로 간주하여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본주의를 특별히 홍보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고 했다.

하원의원들은 "지원금을 받은 '휴머니스트 인터내셔널'(Humanist International)은 무신론 신념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 헌법 위반에 대한 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주요 결함을 드러낸다"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종교 박해에 맞서기 위한 국무부의 노력은, 국무부가 납세자 기금을 이용해 특정 종교를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국무부는 휴머니스트 인터내셔널에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리얼클리어 폴리티스(RealClearPolitics)와의 인터뷰에서 "NOFO는 해외에서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금 기회'는 사회에서 신앙이나 비신앙을 이유로 억압을 당하는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의회의 관심을 환영한다. 7월 대사가 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세폴 OC제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면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제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제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중)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3부예배(EM) 주일 11:00am 4부예배(EM)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요일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요일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림찬양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매일 두번째 금) 주일 오전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요일 6:00am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구반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모든 예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목-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담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침례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전 2:30
화요일성경침례 오후 7:30
토요일침례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홍보기도회 오전 10:00 (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 (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네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침례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 (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이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새벽기도 주일예배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 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5: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s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진유철 칼럼

나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눈에 보이는 Form, 즉 형태나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Space, 정신이나 힘에 의해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상황은 늘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사람의 외모도 변합니다.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나가면 너무 변해있어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로 인해 언제나 당황

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당황스럽고,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이나 이웃이 바뀌는 것이 당황스럽고, 정치나 제도가 바뀌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늘 헛된 것과 싸움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하는 상황과 형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든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특별한 상황이 되어도, 내면의 본질을 추구하기에 모든 변하는 상황을 다 누렸습니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 즉 믿음의 힘은 상황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바울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졌기 때

문에 모든 상황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벧전1:9)으로 주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땅의 삶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며 성공회의 성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의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평생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되지만,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알기는 아는데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잠시 잠깐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진짜 분향인 천국이 점점 더 작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회복을 통해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문제 속에 감춰진 변장된 축복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와 더불어 성장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줍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학생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위한 은총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문제가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산통과 함께 태어납니다. 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成長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아파합니다. 치아가 돌아오는 과정

에서도 아파합니다. 아이는 고통과 함께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고통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와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붙들고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문제를 싫어했습니다. 가능한 문제를 피하길 원했습니다. 가능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문제를 질질 끌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직면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위해서입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해결책의 씨앗을 감추어 두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축복을 감추어 두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절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 함몰됩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작은 문제를 무시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혼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문제보다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문제에서 도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 담대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해결책의 씨앗을 담아 두신 것을 믿으십시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비밀은 문제 속에 해결책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시 46:1). 기도는 문제 해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약 1:5).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은총의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

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오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시작되었고, 간증이 시작되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를 환영하게 됩니다(약 1:2). 그때 문제가 당황하게 됩니다.

다섯째,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때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와 용기를 드러내십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킷 팩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신적 성장을 자극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전적인 태도를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성장이란, 문제를 피하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다. 성장은 더 크고 흥미로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수련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비상응급 서비스 전문 센터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슬상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서사라 목사 해외선교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

1. 베트남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지난 5월,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대표 서사라 목사)가 베트남, 인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을 방문해 목회자 및 리더십 세미나를 열고 중앙아프리카에서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5월 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해 5월 2일, 한 지방의 가정교회를 방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여 명이 모인 시골 농가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일단 자동차로 이동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20여 분간 더 가서 도착할 수 있었다. 모든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알고 계셨고,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마음을 열고 맞아 주셨다.”

이들은, “3박 4일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베트남은 공산국가로 아직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허가된 지역에서만 예배가 허용됐다. 200여 명의 사역자가 모였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웠다.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찬양에는 우리나라 70년대 부흥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영혼을 터치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서사라 목사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의 집회를 7번 진행하면서 말씀과 회개기도, 그리고 강단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결단의 기도를 이끌었고, 주님께서 회개의 눈물과 치유,

각할 때 가슴이 아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3일간 집회를 통해, 베트남 교회가, “축복, 은혜, 기적만 추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에 이어 성화에 이르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향했다.

2. 인도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선교팀은 5월 7일 주일은 뉴델리의 한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펀자브(Punjab)주로 이동하여 4일간 선교했다.

이들은 그들과 5년 동안 동역하는 현지 목사들의 사역지인 고아원, 신학생 기숙사 건축 현장, 방과후학교 현장, 기숙사 및 교회 건축 현장, 가정교회 등을 방문해 방과후학교 진행 상황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후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4일간 결혼식장을 빌려 제3차 인도 목회자집회를 열었다. 1,000km 떨어진 오디사에서, 그리고 파키스탄 국경 근처 한두 지역에서 온 350여 명의 목회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통비까지 지급했다.

이들은 “벌써 인도에 5년 정도 방문해 집



베트남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5월 1~5일) ©주님의사랑 선교센터

베트남 · 인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목회자 · 리더십 세미나 개최

제를 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3년째 진행 중이며, 선생님들의 월급과 아이들의 간식비를 매달 지원해 지역 전도와 다음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인도 28개 주에 이 방과후학교를 세워 전도와 문화 사역을 계속할 계획으로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모여 있었다. 이 나라에는 순복음계열 교단과 정교회 교단이 별다른 교류 없이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 두 교단의 목사님들이 참석해 화합과 하나 됨을 이뤘다. 정교회 교단은 성경의 역사, 치유, 방언의 역사를 성경에서만 읽고 경험하지 못한 보수 장로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회개와 치유와 결단의 역사가 있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두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선교를 보고했다.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선교팀은 다음 행선지인 중앙아프리카로 향했다. 인도의 차트말공항에서 22시간의 비행 끝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 여정에 대해, “선교가 영적 전투일 뿐 아니라 육체적 전투임을 알게 됐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고 목숨을 건 영육의 전투였을지 생각하게 됐다”고 나누었다.

4. 중앙아프리카 우물파기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중앙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우물파기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나눴다. “이 나라는 수도정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질병과 목마름이 시달리는 나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물파기프로젝트를 진행해 3박 4일 집회 후 5군데의 우물파기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그 중 절실히 필요한 3곳, 즉 교회가 있고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 집중지역을 선정했다. 두 곳의 업체를 방문해, 비교한 후 여러 서류 작업을 확정하고 10,000 달러 즉 약 1,200만원의 경비로 3곳의 우물을 파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제공

이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우리나라의 1950-60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인구의 50% 이상이 개신교였기에 그 더운 날씨에도 집회 장소에는 약 350명의 사역자가



인도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5월 6~12일) ©주님의사랑 선교센터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썼다.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는 베트남 교회에 대해 “이미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살아있는 교회였다. 한번 예배를 드리면 금식하면서 6시간 드리고, 이곳의 제자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산골을 다니며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여행을 한다고 했다. 찬양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한국의 찬양은 물론 미국의 찬양, 그리고 베트남 찬양을 자유자재로 올려 드렸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하고 물으니 한국인 선교사에게서 배웠다고 하여 우리 부부는 놀랍고 슬펐다. 이것을 가르쳐 준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그 열정을 잃고 일부 교회와 교단은 동성애와 동성애 목사를 찬성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을 생

회를 인도하였기에 더욱 깊은 기도와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 또 이곳 신학생의 졸업식에 참석해 교재를 나눴다. 훈련을 받은 이들은 능숙하게 집회 운영을 도왔고, 지역 정치인을 초청해 연설하게 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외에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인도 찬양과 율동을 선보여 지역 축제로 발전했다”고 집회에 대해 보고했다.

또, “집회 마지막에는 병 치유를 비롯해 힌두 사제가 나와 예수를 믿겠다고 목숨을 건 간증을 하는 등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졌고, 참석자들은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전했다.

“지금 이곳 인도에서는 1,500여 명의 학생이 70여 개의 방과후학교에 다니고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속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5월 13~25일) ©주님의사랑 선교센터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오희용 내과
HEE-YOH, D.B. MEDICAL CLINIC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희용 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Z-UP 전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For the Spirit & Body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찬북뉴스서평] 교리의 목적은 인격적 변화다

12가지 기독교 핵심 교리, 우리 삶도 12번 바꿀 수 있을까?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폴 트립 | 윤종석 역
디모데 | 516쪽

내가 믿고 사랑하며
숭배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삶을 빛어낸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창조, 칭의, 성화,
영원에 대한 교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배우다!

직 신학만을 논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폴 트립의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만큼 실천적인 조직신학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학자로서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의 문제를 다뤄왔던 뛰어난 저술가, 강연가로서 폴 트립은 체계적인 신학이 어떻게 가정, 교회, 직장, 자녀 양육, 부부생활 등에 적용되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제시한다.

저자 폴 트립은 이렇게 말했다: “교리의 주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다. 지식은 성경 진리의 기능 중 하나다. 그리고 지식은 진리의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다. 진리의 목표는 철저한 인격적 변화다.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가 우리 위에 비처럼 내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계획하셨다(20 쪽).”

트립은 성경,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권, 전능하심, 창조, 인간, 죄, 칭의, 성화, 견인과 영화, 영원을 각각 다루는데(그래서 부제가 ‘삶을 바꾸는 12가지 기독교 핵심 교리’이다), 교리와 그 교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개 장으로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설명한다.

예로 1장은 ‘성경에 대한 교리’이고 2장은 ‘일상생활 속의 성경’, 3장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고, 4장은 ‘일상생활 속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룬다. 교리보다는 일상생활 속에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했다.

교실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조직신학 책들은 트립보다 더 세부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편이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조직신학 내용은 폴 트립의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폴 트립은 굉장히 솔직한 저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진리, 그리고 많은 실패의 경험까지 나누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독자로 하여금 연약하고 불안정한 자신이 아니라 풍성하고 은혜로운 복음을 붙들게 한다.

그가 쓴 실천적인 조직신학 책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분명히 나타난다. 어떤 교리를 다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할 때 일어난 문제와 바르게 적용했을 때 얻는 열매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우리는 신학을 접할 때 추상적인 하늘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는다. 그러면서 놓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트립은 이 책을 통해 그 손실을 최소화로 줄여준다.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이다. 보통의 조직신학 서적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집중해 체계적이고



저자 폴 트립. ©유튜브

세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트립의 책은 모든 장에 복음적 요소가 빠짐없이 나온다.

성경은 구속사를 다루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거룩하심, 주권, 전능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을 통해 강력하게 드러나고,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해 영원히 말소하

셨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각각의 진리는 똑똑 떨어져 있는 파편적인 교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합된 교리이다. 독자는 트립이 다루는 12가지 핵심 교리의 다양한 적용 과제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와 실질적 교훈을 주는지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혼자 읽기보다 여럿이 함께 읽기에 좋다. 분량 면에서도 같이 읽는 것이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기에 좋다(총 516쪽). 스티디 가이드가 따로 없는 것이 아쉽긴 한데, 각각의 교리를 배우고 서로 어떻게 삶의 각 영역에 적용했는지 나누는 것으로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책 원래 제목은 ‘Do You Believe?’이다. 이 책은 독자가 정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 진리가 독자의 삶에서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여 변화된 인격을 낳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준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가 입술과 삶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 1:14

Guard the good deposit
that was entrusted
to you - guard it with
the

2023. 8. 14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下)

미국 정착한 한인들 복음화가 어려워진 이유

한국 발전 덕분에 이민 열의 줄고 미국 과대평가 인식도 많이 불식 한인교회 역할 중요성은 더 커져 복음 전파 명령 외면했는지 고민

◆미국 내 한인 이민자: 1970-80년대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한 한국인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이 그려내는 미국 내 한인 이민자 자녀들의 치열하고 고달픈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내 한인교회와 맺고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와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전과 달리 한국인들이 굳이 고생하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한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유대감과 관심이 많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이른바 꿈의 이상향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다. 당시 미국은 경제, 문화,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선진국이었고, 지금처럼 마약이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은 나라였다.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겨우 발돋움한 군사독재 국가 한국에 살던 이들 눈으로 볼 때 미국이 이상향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이란 한국 기독교 신앙의 발원지(한국 개신교 선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이자, 삶의 모든 측면에 최고도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신앙을 위한 터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1970-80년대 미국 이민은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도전, 하지만 정착에 성공하면 한국에 남아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과실을 거둘 수 있는 도전으로 여겨졌다.

당연히 미국 이민을 향한 열기가 뜨거웠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이 이루어졌다.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 등장하는 대니 조(스티븐 연 분), 폴 조(영 마지노 분) 등 한국계 이민 2세대 캐릭터들은 1970-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을 위해 생존투쟁을 벌여야 했던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절반쯤은 한국인이면서 절반쯤은 미국인인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미국 사

회 내부에서의 불분명한 위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근본적인 불안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내 미국에 이민을 간 친지들이 있는 가정이 워낙 많아 미국 내 한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1993년에는 미국 내 한인 가정의 갈등과 고뇌를 묘사한 <역새 바람>같은 드라마가 제작될 정도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내부적인 발전 덕분에 1970-80년대처럼 미국 이민에 열의를 가진 이들이 줄어들었다. 과대평가된 면이 없지 않았던 미국에 대한 인식들이 1990년대 이후, 특히 1992년 LA 폭동 이후 상당 부분 불식되기도 했고, 한국도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전처럼 맨몸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도미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추세가 주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주요기업 진출을 위한 중상류층 중심의 이민으로 변화되면서 미국 내 한인교회의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다시금 변화할 기미가 보인다.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최고 정점을 찍고 향후 장기 저성장의 현실을 눈앞에 둔 현재, 다시금 국내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이민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능력과 기회만 있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망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미국 내에서 정착하려 분투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조금씩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 한인교회: 복음화의 전초기지인가, 아니면 친교와 인맥 형성의 현장인가

이런 상황에서 한인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져가는 추세이다.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 덕분에 예전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한인교회는 미국 내 한인들의 인맥과 친교를 지탱하는 주된 근거지 역할을 맡고 있다. 드라마 <성난 사람들> 주요 스토리가 한인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성난 사람들>의 한인교회 묘사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한인교회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화의 노력이 대부분 배제된 채 순전히 친교의 장,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 정도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이 교회 내에서 청년부 리더로 인정을 받으며 활동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된다.

예초 반기독교 기조를 표방하는 넷플릭스에서 그나마 교회를 인간적인 정감이 살아있



미국 내 동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의 각박한 삶과 불안감을 소재로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성난 사람들>.



작중 진정한 회심의 경험과 신앙심 없이 그저 교회 내에서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청년부 리더와 찬양인도를 맡게 된 대니 조.

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인교회에 대한 드라마의 묘사가 지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한인교회가 서사의 중심 무대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라 더욱 그렇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형 한인교회 Living Glory Church의 청년부 새신자로 입교한 주인공 대니 조는 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서도 결국 교회 내에서 선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여 청년부의 리더를 맡는 동시에 찬양 집회 인도도 맡게 된다.

게다가 원래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던 에드윈(저스틴 민 분) 역시 깊이있는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때때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고 주도권을 잡는 데에만 주력하는 인물이다.

이로써 이 드라마는 한인교회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내부에서 인간관계만 잘 맺어 놓으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곳으로 묘사한다.

분명 <성난 사람들> 속의 한인교회 묘사는 한인교회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 대중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다.

한인 이민자들 사이 온갖 친분과 이권, 그리고 갈등이 중첩되면서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환상과 환멸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공간, 그것이 세간에서 바라본 한인교회의 대표적 이미지일 것이다.

작중 주인공 대니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Living Glory Church의 청년부 찬양집회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그나마 교회가 가진 심적 위로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목사님의 모습 역시 한인교회가 가진 복음화 기능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나고 나서 대니의 삶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교인이자 책임감 있는 청년부 리더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사기와 범주를 지속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로써 <성난 사람들>은 한인교회가 걸로만 복음화의 능력을 갖췄을 뿐 사실상 한인 청년들에게 신앙심과 도덕적 양심을 일깨워주는 힘을 상실했으며 오로지 친교와 인맥을 통한 이권을 통해서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한인교회가 순전히 기능적인 친교의 현장 혹은 이권과 욕망이 뒤얽힌 갈등의 현장으로 비쳐지게 된 데에 교회 측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한없이 지친 이들에게 천국과 내세를 향한 진중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보다는 값싸고 즉각적인 위로의 메시지, 즉 한국교회 특유의 기복적인 설교와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 점이 한인교회들의 큰 실책 중 하나일 것이다.

<성난 사람들>에 묘사된 한인교회의 명과 암은 미국 내 한인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고민거리를 일깨워준다. 복음이 바탕이 된 친교인가? 아니면 교회의 외형 유지를 위한 친교인가?

교회에 대한 세간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필요도 있지만, 교회들이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데만 몰두하다, 정작 복음 전파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심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